

화제의 인물 - 무속인 김만용

# 국운을 예언하며,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무속인 수원 일월정사 김만용 법사(김도령)

## 최근 SBS 뉴스를 통해 선행이 알려지면서 미담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무속인으로 밝혀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 대한방송에서 화제가 된 '일월정사 김도령' 5월17일 방영



그가 계룡산에서 도를 닦던 도중 신으로부터 점지 받아 얻은 영험한 돌은 자연과 생명의 기운을 지녀 세상을 밝히며, 활력이 있어 많은 사람과 환자에게 빛과 생명을 전해준다.

#### “한국의 전통문화(傳統文化)가 살아 숨 쉬는 무속”

우리나라 무속은 불멸의 전능자로서의 신,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이 영생한다는 내세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중간에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무속인' 혹은 '무당'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신에게 현실의 복을 기원함으로써 인간 삶의 안위와 평화를 기원하는 존재로 개인의 고통 회복을 점치는 것은 물론, 넓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운을 예언하며,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무속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무당은 토속신앙의 주체인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때문에 나라의 시국이 어지러워지거나 인간의 마음에 악한 기운이 기승을 부릴 때면 무속인들은 혼란을 잠재우고자 기도를 하고 재를 지낸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 거짓을 흘려주는 사기꾼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 수원 일월정사 김만용 법사는 "무속을 맹신해서도 안되겠지만, 무시해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일부 물지각한 행동을 일삼는 가짜 무속인들로 인해 정직한 무속인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을 듣고서야 병원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신내림을 받았다는 다짐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속신앙, 토속신앙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그에게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의 나이 29살의 일이었다.

이렇게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김만용 법사는 지금도 계룡산과 태백산, 동해바다, 대관령 등으로 수행을 다니고 있는데, 70일 가량을 속세와 단절된 상태로 생식을 하며 신과의 대화, 영적인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신내림으로 얻은 영험함과 꾸준히 자신을 길고 닦으며 수행에 전념했던 그에게 어쩌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심안과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능력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지도 모르지만 김만용 법사는 이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신내림을 받기 이전에는 죽을듯한 고통으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신을 모시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로 들어서며 세상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신내림을 받기 전에는 그날그날을 헛되이 살아왔다면 신을 모신 후에는 인간의 삶이나 신의 영역, 수행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며, 무속인으로서 항상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생각으로 보람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만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혈병으로 6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던 박광삼 씨 부인,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배우 김희라 씨, 정신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모 재벌 그룹의 총수 딸도 일주일 만에 치유시킨 김도령

물론 지역봉사단체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김 법사는 직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목욕봉사를 실천하며 많은 무속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렇듯 그가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계룡산에서 도를 닦던 중 꿈에 나타난 할머니가 무속활동으로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라는 명에 따른 것으로 김만용 법사는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 '병명도 모르는 병이 퍼질 것이 우려되니 나가서 만인을 구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며 '사람은 어렵다 어렵다' 말하고 생각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살다보면 인생에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헤쳐 나가기 나름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 토속 신앙의 힘을 조금이나마 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는 김만용 법사,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예언하였던

이런 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며 "2013년 초반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곡도 많을 것이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반부터 점점 나아질 것이고, 2013년 말이 되면 가을과 기반이 잡히면서 서민을 생각할 줄 아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하며, 모든 국민들이 이를 한해에도 희망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줄 것을 당부했다.

## 1년 365일 예약손님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영험한 무속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일월정사, '김도령'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무속인 김만용(011-737-7148) 씨는 국가의 대사를 점치며 나라굿을 하는 작두굿의 1인자로 손꼽힌다. 재계, 정관계,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의 정치와 경제 흐름의 대소사를 '신통'하게 알아맞히는 그에게는 그러나, 말로 다 하지 못할 젊은 날의 고통이 있었다. 작두굿을 하는 김도령은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한 인간문화재다. '신통한 예언 능력' 외에도 그는 불치의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서민, 병마에 시달리던 연예인도 그의 손에서 새 삶을 얻었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마치 그의 젊은 시절 고통을 치유라도 하듯, 발휘되고 있다. "무속인은 자신의 특별한 힘을 현세의 많은 이들의 고통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김만용 무속인, 그가 계룡산에서 도를 닦던 도중 신으로부터 점지받아 얻은 영험한 돌은 자연과 생명의 기운을 지녀 세상을 밝히며, 원력이 있어 많은 사람과 환자에게 빛과 생명을 전해주고 있으며, 청소년 가장과 독거노인의 생계를 돕는 등 이웃들기에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 만인을 위해 기도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김도령'

일월정사 김만용 법사는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바른길을 안내해주는 스승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는 17살이라는 어린나이부터 비범함을 보여 왔는데, 비가 오늘 날이면 자신도 모르게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자가 도를 닦듯 좌선을 하고 앉아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하며, 스스로 수양을 쌓아 왔는데, 이후로도 그의 기행은 계속되었다. 군대에 입대한 후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의가사제대를 해야만 했던 김 법사는 제대 후 수많은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병의 원인조차 찾지 못했다. 결국 김 법사는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정신병원까지 입원해야만 했고, 하반신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간 그는 신내림을 받아야만 나올 수 있는 '무병'이라는 말

**이런 문제와 걱정, 고민을 상담해 드립니다.**

- ▶ 주택 이전 이사, 부동산 매매
- ▶ 재산관리, 재테크, 개업 전업 폐업, 상가운영
- ▶ 궁합, 애정운, 이상형 찾기, 결혼, 이혼
- ▶ 지병, 중풍, 정신질환, 우울증, 가정불화
- ▶ 사주팔자, 관상, 택일
- ▶ 집터, 명당, 부적
- ▶ 컴퓨터 중독, 학교 왕따, 폭식, 거식
- ▶ 부모 친구 증오, 대화단절, 집중력 감퇴
- ▶ 감정조절 미흡, 자제력 미약
- ▶ 환경, 환각, 식욕부진 등
- 불임여성